

AI와 예술을 접목한 온라인 공간은 새로웠지만 아쉬움도 있었다.
예술 체험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, 결과물의 품질도 사실
앨 기능이 더해 휘둘러나지 않았다.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만족할
것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. 자막 기능이 없어 청각 장애인 등
듣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.